

참고 4.

신 회계기준 도입이 보험회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¹⁾

국내 보험업계는 2023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9, IFRS17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재무관리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²⁾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 회계기준은 당초 2021년 도입 예정³⁾이었으나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년 간 연기되었다가 금년부터 모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신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과 동 기준 도입이 보험회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신 회계기준 주요 내용

먼저 신 회계기준 중 금융자산에 대한 기준서인 IFRS9은 금융자산의 범주를 조정하였으며 자산분류 및 가치측정을 개별 보험회사 결정(IAS39)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기준서인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보험부채를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3개 요소⁴⁾로 구분하여, 미래 현금유출 및 수익성에 대한 정보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회계기준 주요 내용

구분	기존	신규	
	IAS39	IFRS9	
분류기준	보유목적 및 의도	객관적 기준 (계약상 현금흐름 사업모형)	
금융 자산 범주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¹⁾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²⁾ -상각후 원가측정(AC) ³⁾	
손상인식	발생손실 모형	기대신용손실 모형	
보험 계약	부채평가	원가평가	시기평가
	부채 구성요소	책임준비금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수익인식	현금주의	발생주의

주: 1)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3) Amortized Cost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회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

시기평가대상 자산 비중 대폭 확대

IFRS9 적용으로 보험회사 금융자산 중 상당 규모가 시기평가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2023년 1/4분기말 현재 2022년말 대비 보험회사의 금융자산 분류 비중 변화를 보면,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의 비중은 각각 15.0%포인트, 22.1%포인트 확대된 반면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 상각후 원가측정(AC) 자산의 비중은 39.4%포인트 줄어들었다.⁵⁾ 이러한 시기평가대상 자산 비중 확대에는 보험회사들

1) 본고는 이영선·최신·도지윤(금융시장연구팀)이 작성, 김명철(공개시장부장)·한민(금융시장연구팀장)이 검토하였다.

2) 신 회계기준에 따른 보험회사 총자산순이익률은 금년 1/4분기중 1.70%로 전년 동기(0.91%) 대비 대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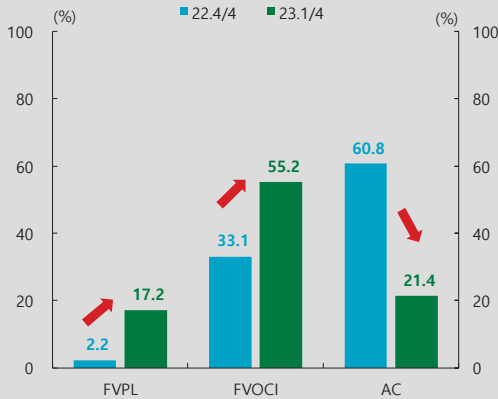
3) IFRS9(제1109호 기준서)은 2014년에 발행된 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에 관한 회계기준으로 2018년부터 국내에 적용되었으나 보험회사의 경우 IFRS17 도입시점인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면제되었다. 다만 보험사업이 비주류인 금융그룹에 속한 일부 보험회사는 2018년부터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IFRS9을 조기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왔다.

4) 최선추정부채는 보험계약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위험조정은 최선추정부채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적용하는 부채를 의미한다. 또한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으로부터 인식할 미래 이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5) 상각후 원가측정(AC) 자산의 80% 이상이 대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 주식 등 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은 대부분 시기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1/4분기말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중 FVPL 비중은 22.2%, FVOCI는 69.6%로 나타났으며, AC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는 5.0%에 불과하였다. 한편, AC자산 중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1.8%로 나타났다.

이 일상적 유동성 관리 및 이자수취 등을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⁶⁾을 채택하고 있는 점과 지난해 보유자산 가치하락에 대응하여 채권을 재분류⁷⁾한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IFRS9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 변화¹⁰⁾



주: 1) 특별계정자산 제외
2) 2022년 4/4분기 FVPL은 당기손익인식증권, FVOCI는 매도가능증권, AC는 만기보유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의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수익증권의 당기손익 영향 확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금융자산 비중이 수익증권⁸⁾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자산의 가치변화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수익증권을 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량적으로 분류해 오면서 수익증권의 이자(배당)수익만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IFRS9 하에서 수익증권 항목 중 배당이 발생하는 자산군

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금융자산 범주에 편입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증권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금년 1/4분기중 발생한 평가손익을 별도 공시한 보험회사를 살펴보면 금리하락 등에 힘입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금융자산 가치가 증가하면서 당기손익이익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기손익 및 FVPL 평가손익 비교

구분	22.1/4			23.1/4		
	A사	B사	C사	A사	B사	C사
당기손익	3,570	196	263	7,948	1,007	1,054
(평가손익 ⁹⁾)	5	-35	-18	1,841	1,553	1,764

주: 1) 1/4분기중 FVPL로 편입된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기준
자료: 각 사 분기보고서

부채의 시가평가로 자본 상황 개선

보험업권의 자본 상황은 자산만 시가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IFRS17 기준에 따라 부채에도 시가평가가 적용되면서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듀레이션 갭(자산-부채)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부채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2023년 1/4분기 중 부채 감소에 따른 이익인 보험계약 금융손익 규모는 62.9조원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의 손실 규모(-33.8조원)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이 큰 폭 증가(+69.6조원)하면서 지난해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손실 확대로 증대되었던 자본관리 부담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⁰⁾

- IFRS9에서는 ① 일상적 유동성 수요 관리, ② 특정이자수의 유지, ③ 금융자산과 자금조달을 위한 부채의 만기 일치 등을 추구하는 사업모형을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상품(舊 매도가능증권) 보유 사업모형으로 제시한다.
-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보유채권 평가손실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본관리 이슈가 부각되자, 국내 보험업권은 이에 대응하여 사상 최고 수준인 163조원 규모의 보유채권을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였다.
- 수익증권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투자기관인 신탁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주식, 파생상품, 채권, 콜, CP, RP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분배해주는 권리증서를 의미하며 통상 배당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IFRS9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각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채무상품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FVPL)로 분류한다.
- 2021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회사 보유 채권의 대규모 평가손실로 RBC비율이 큰 폭 하락한 바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완화(당초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던 LAT인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시가평가 보험부채)의 40%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 22.6월)로 자본관리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를 하락세가 2022년말까지 지속되었다.

보험회사 자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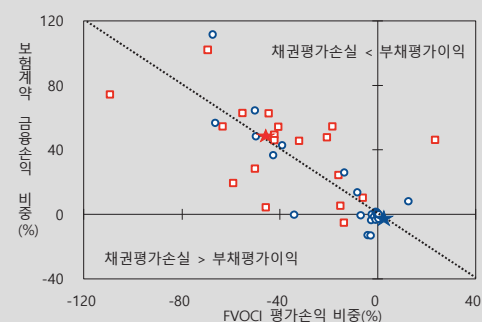
(조원)

구분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2.12	23.3	22.12	23.3	22.12	23.3
자본총계	88.8	158.5	50.0	100.6	38.8	57.9
기타포괄손익 누계	-18.9	32.3	-12.9	28.4	-6.0	3.9
(FVOCI 평가손익)	-15.6	-33.8	-10.1	-20.4	-5.5	-13.4
(보험계약 금융손익)	-	62.9	-	49.0	-	13.9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다만 이를 업권별, 그리고 개별 보험회사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보유 금융자산과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신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손해보험업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13.4조원)과 보험계약 금융손익(+13.9조원)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개별 회사별로도 45도 선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업권의 경우 업권 전체로는 부채 감소에 따른 이익이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개별 회사별로는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 관리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 자본총계 대비 보험계약 금융손익 및 FVOCI 평가손익 비중 분포¹⁾



주: 1) 파란원은 손보사, 빨간네모는 생보사, 별표는 각 업권별 중위값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보험계약마진은 업권별로 크게 차별화

IFRS17 적용으로 처음 측정되는 보험계약마진¹¹⁾은 계약시점에는 보험부채로 계상된 후 점진적으로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인식되며, 보험계약 보유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23년 1/4분기말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마진은 117조원으로 전체 보험계약부채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마진 비중이 30.5%로 생명보험회사(10.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계약 기간중 보험계약마진이 높게 측정¹²⁾되는 보장성보험 비중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IFRS17 적용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계약부채¹²⁾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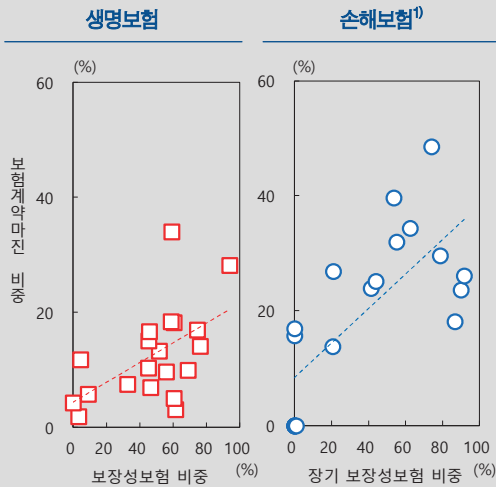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IFRS 4(22년말)		
책임준비금 (941.7, 100%)	책임준비금 (674.2, 100%)	책임준비금 (267.5, 100%)
IFRS17(23.3월말)		
최선추정부채 (578.0, 78.6%)	최선추정부채 (466.4, 87.7%)	최선추정부채 (111.6, 54.8%)
보험계약마진 (117.0, 15.9%)	보험계약마진 (54.8, 10.3%)	보험계약마진 (62.2, 30.5%)
위험조정 (22.0, 3.0%)	위험조정 (10.7, 2.0%)	위험조정 (11.3, 5.5%)
보험료배분 접근법 (18.8, 2.5%)		보험료배분 접근법 (18.8, 9.2%)

주: 1) 재보험계약부채 포함
 2) 단위는 조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를 개별 보험회사별¹³⁾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업권의 경우 보험계약마진 비중이 보장성보험 비중과 대체로 양의 관계를 보이며 2%~34% 수준을 나타내었다. 손해보험업권의 경우 대부분의 계약이 보장성보험으로 구성되는 만큼 보험계약마진 비중도 장기형 보유 비중에 따라 14%~49%로 큰 차이를 보였다.

11)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순유입 현가(예상치)에 불확실성에 따른 조정액(위험조정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IFRS17에서는 보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험계약마진 상각을 이익으로 인식하므로, 보험계약마진 규모가 클수록 미래 인식되는 수익이 큼을 의미한다.
 12) 보장성상품은 고객에게 수취한 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 등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저축성보험은 수취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이 더 큰 상품으로 보험계약마진이 작다.

업권별 보험계약부채 대비 보험계약자산 비중



주: 1) 보유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산이 높게 측정되는 장기 보장성보험 계약 비중과 비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평가 및 시사점

국내 보험회사들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은 신 회계기준 적용으로 자본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별 회사별로는 보유 자산과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기준 변화의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보험업권은 신 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 등에서 새로운 행태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시가평가가 자산·부채에 모두 적용됨에 따라 듀레이션 갭(자산·부채) 관리의 중요성¹⁴⁾이 높아진 만큼, 향후 보험회사의 ALM 전략에

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듀레이션 갭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자산 듀레이션 확대 및 자산·부채 간 현금흐름 매칭에 한층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업권이 활용한 장기채권 현물투자 및 채권 선도거래 외에 금리파생상품 활용¹⁵⁾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FVPL 금융자산 비중 확대에 따라 커질 수 있는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증권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동시에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¹⁶⁾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의 투자행태 변화가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보험계약자산 관련 지표가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 만큼, 보험업권은 외형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간 보험회사들이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산이 큰 보장성상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축성보험 대비 보험료 수입이 적은 보장성상품으로의 영업 쏠림으로 현금유동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험업권의 유동성 사정 등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야 하겠다.

13) 한편 IFRS17에서는 보험계약자산의 구체적 산출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데다 측정 시 추정요소들도 적지 않아 보험회사별 계리적 가정이 지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산정기준의 객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5.31일)하였으며, 이는 2023년 6월 결산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4)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은 시가평가, 부채는 원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본변동성은 금리부 자산의 듀레이션에 의해 결정되지만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듀레이션 갭에 따라 자본변동성이 결정된다.

15) 금리파생상품은 현물채권 매입 등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듀레이션 확대 및 현금흐름 매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에는 위험회피회계 미적용, 파생거래 한도제한, 장기 선물시장 미발달 등으로 보험회사의 활용이 제약되어 왔었다. 모니터링 결과 개별 보험회사들은 위험회피회계 미적용에 따른 파생상품 손익의 당기손익 반영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파생거래 활용 유인 중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보험연구원(2023)에 따르면 개별 보험회사들은 수익증권 비중 축소, 주식형에서 대출채권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지 등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에 따른 당기손익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